

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 · 인프라 동향 보고(12.26)

1.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

○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Source: <https://www.bb.org.bd/en/index.php/econdata/index>

구 분	내 용	비 고
은행간 환율	110.00 Tk/USD (전주대비 0.00△)	'23.12.26 기준
기준금리	4% 유지	'23.11월 기준
월평균 시중금리	8.03% (전월대비 0.68△)	'23.11월 기준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2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현지화 10년물 8.505%)

▼ 8.505 -0.00 -0.00%

출처: <http://www.worldgovernmentbonds.com/bond-historical-data/bangladesh/10-years/>

Yield changed +0.0 bp during last week, +0.0 bp during last month, +5.5 bp during last year.

Current Yield is close to **1 year maximum value**

Period	Change	Min	Range	Max
1 Week	0.0 bp	8.505 % Dec 19, 2023	No change	8.505 % Dec 26, 2023
1 Month	0.0 bp	8.505 % Nov 26, 2023	No change	8.505 % Dec 26, 2023
6 Months	0.0 bp	8.505 % Jun 26, 2023	No change	8.505 % Dec 26, 2023
1 Year	+5.5 bp	8.450 % Dec 26, 2022		8.510 % Jan 14, 2023

Current Yield 8.505%
Last update 26 Dec 2023 0:15 GMT+0

□ 부정, 권력남용을 통한 자금세탁

- 부정과 권력 남용으로 지난 15년간 9,226억 1,000만 Tk의 거액이 은행을 통해 유용되었고 해외에서 자금세탁 되었을 수 있음. 이 금액은 현재 국가 예산의 거의 12.1%, GDP의 1.8%에 해당.
- 장기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은 2021년 53억 달러로 2022년 62억 달러로 16.9% 증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0년 37억 달러에 불과. 국가의 대외 채무 총액은 올해 9월 말 965억 4천만 달러.

- 주요 소수 업체들의 시장 조작과 부적절한 감시 장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필수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침.
- 최근 2022년 통계국 조사는 상위 5.0%의 부자들이 현재 하위 5.0%의 재산보다 80배나 더 높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방글라데시 송금, 2024년 23b달러로 보합세

- WB는 2023년 방글라데시로의 외화송금이 2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내년에도 성장세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노동 수출 부문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송금 유입은 지난 2년간 정체를 보이며 220억 달러 선을 맴돌았음. 글로벌 대출 기관은 내년 방글라데시의 주요 송금원인 중동 국가들에서 남아시아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전망.

□ 선거를 앞두고 ADP(연간개발계획) 시행 감소

- 이행감시평가과(IMED) 자료에 따르면 현 회계연도 첫 5개월간 연간 개발계획(ADP) 이행률은 최근 8년래 최저치인 17.06%로 급감.
- 2023년 ADB 이행률은 18.41%로 전년 대비 tk. 265크로어 미만. 이전 까지 ADP 이행률은 FY 2015-16에서 16.84%로 낮은 수준.
- IMED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 초에 특히 시행이 막바지 단계인 도로, 철도, 선박 및 수자원 관련 사업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ADB 지출을 늘릴 것을 강조했으나, 초기 및 중간 단계의 사업에서는 시행 속도를 높일 수 없었다고 함.
- 해외로부터의 물품 구매 지연(경제 상황과 달러 위기의 영향)으로, 많은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

□ 외채 265% 증가, 상환액 6배 증가

- 방글라데시 대외 채무는 2023년 말 970.1억 달러로 과거 2010년 기록한 265억 달러보다 265% 증가. 더욱이 같은 기간 이자부 채무 상환액은

6배나 급증. 방글라데시는 2010년말 이자부로 10.2억 달러를 상환, 이는 2022년 61.7억 달러로 12년 만에 증가한 수치.

- 2023년 기준 외채 보유액 970억1,100만 달러 중 장기채무는 755억 5,000만 달러, 단기신용은 185억3,000만 달러, IMF 대출은 29억8,000만 달러로 급증.

2. 건설 · 인프라 시장 동향

□ 전력/에너지 부문, 달러 위기 속에서 미결제 누적액 50억 달러

- 전력 및 에너지 부문의 누적 미결제 청구서는 현재 약 50억 달러로 급증, 이 중 전력 부문의 밀린 금액은 약 40억 달러(약 4만3093크로어)이며 나머지 10억 달러는 에너지 부문.
- 심각한 현금 경색, 특히 미국 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대금지불에 막대한 연체가 발생.
-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나스룰 하미드)도 위기의 심각성 인정. 전력·에너지 부문이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소 한 달에 1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Petrobangla는 천연가스를 구매를 통해 현지 전력/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셰브론 등 외국 회사에 외화로 자금 지불해야 함. 또한, 전력개발위원회(BPDB)는 인도로부터 2,500 MW의 전력을 수입해야 함.

□ 콕스바자 풍력발전 프로젝트, 두 달내 완공 예정

- 12월 기준, 앞으로 두 달내 6천만 MW 풍력발전 프로젝트 완공 예상. (방글라데시 최초의 상업용 풍력발전 프로젝트)
- 총 사업비 1억1651만 달러, 22년 3월 31일착공, US-DK 그린에너지 BD Ltd가 중국 기업인 SPIC 우일링발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실시. 운영개시 후 18년 관리 계약에 따라 정부에 전기 판매 예정.

- 연간 약 1억4500만kWh의 청정 전력 생산, 석탄 소비량 4만4600t, 이산화탄소 배출량 10만9200t 감축, 10만 가구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 콕스 바자 풍력발전소 현장소장은 이 지역이 사이클론에 취약한 점, 지질학적 조건, 다양한 풍속 등을 고려해 방글라데시에 맞춘 '차이나 플랜'을 이 프로젝트에 맞추어 각색할 것을 강조.
- 콕스의 바자를 넘어 시라즈간즈, 바게르하트, 추아당가 지역에서도 누적 102MW 규모의 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 찬드푸르 사다르에 50MW 규모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와 페니의 소나가지에 30MW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도 파이프라인에 포함. 또한, 덴마크도 방글라데시의 500MW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13억 달러를 투자.
- 방글라데시 재생에너지 계획 (2025년까지 전력의 10%를 태양광, 수력,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대비, 현재 2% 수준에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치를 최소 12%까지 높일 필요 있음.
- 당초 2015년까지 5%, 2020년까지 10%의 재생에너지를 목표로 잡았으며, 2041년까지 2만MW의 녹색전력을 생산하겠다는 목표치에 대해서 낙관중.

□ 공항 터미널 일본 ODA 3차, 5억 4천만 달러 수취

- 방글라데시와 일본은 23일 제44차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지원에 서명, 엔화 차관을 통해 항공 분야에서 큰 진전 기대. 다카의 하즈랏 샤잘랄 국제공항(HSIA) 확장에는 7663만5000엔(약 5억4000만 달러)이 소요.
- 이 시설은 하즈랏 샤잘랄 국제공항의 제3국제여객터미널과 화물 터미널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
- 이 협정은 이와마 기미노리 방글라데시 주재 일본 대사와 샤흐리아르 카데르 시디키 JICA 방글라데시 사무소 ERD 사무국장 겸 수석대표가 공식화.
- 금번의 기금은 공항 확장 사업을 위한 일본 차관의 세 번째 지원으로

총 22.1억 달러에 달함. 총 Tk 21,300크로어의 비용이 투입된 세 번째 터미널 프로젝트는 2019년 12월에 시작. 총 프로젝트 비용 중 일본 국제협력청이 Tk 15,000크로어에 자금을 지원, 나머지는 정부재원 지원.

- 특히 제44차 ODA 차관 패키지는 하즈라트 샤잘랄 국제공항 확장 사업(Ⅲ단계)을 대상으로 함.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금리 연 1.30%, 10년 유예, 20년 상환.

3.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

□ 다카, 버스 3대 전소

- 신원 미상의 방화범이 12.23(토) 수도 단몬디(정부청사 밀집지역), 미르푸르, 굴리스탄 지역에서 버스 3대에 방화.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단몬디에서 버스 방화 사건 발생. 이어, 밤 9시 15분쯤 굴리스탄 요금소 인근에서 버스 방화 사건 발생. 10시 30분쯤에는 미르푸르 13번 도로에서 버스 방화사건 발생.

□ 선거 폭력 사태 격화, 마다리푸르에서 1명 사망, 다수 부상

-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집회가 공격받고 노동자들이 구타와 협박을 받는 등 1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를 둘러싼 갈등 고조.
- 25일 마다리푸르의 칼키니에서 사망사건 발생. 또한, 한 무소속 후보의 자택에서 총격 사건도 발생.
- 17일~28일 기간, 11개 선거구 15곳에서 충돌발생. 이들 사건으로 최소 30명 부상.
- 선거 캠페인은 12월 18일 시작. 그 이후로 46곳에서 충돌발생, 1인 사망.

□ 다카 '매우 건강에 좋지 않은' 공기 세계 최악

- 다카가 12.26 아침, 다시 한번 최악의 공기 질로 전세계 1위를 차지. 공기질 지수에 따르면, AQI 점수 296점으로 다카의 공기는 '매우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